07-26 (통권 153호)
2007.6.29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 미국, 주택시장 불안 지속

경영 노트
- 금융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환경 금융'

사회 트렌드
- 최고의 여가활동은 TV 시청
- 新이모

저널 브리프
- 증시 발목 잡는 금리

洗心錄
- 인재를 고르는 안목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 **한국은행의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006년 3/4분기 이래 3분기 연속 증가하였음**

- 동 지수는 현재의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의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구성 지수를 종합해 만듬
- 100을 상회하면 가계 사정과 경제상황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임
-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호전은 증시 호조와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 같은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반이 좋아지고 있다는 뚜렷한 거시 경제 지표상의 변화는 아직 없어 올해 하반기 경기 호전을 장담할 수는 없음**

□ 미국, 주택시장 불안 지속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Standard & Poor's)가 발표하는 S&P/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4월 기준) 2.7% 급락하며 1991년 9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동 지표는 S&P가 1987년부터 미국내 주요 10개 도시의 주택가격을 종합하여 발표하는데, 美 상무부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발표하는 지표보다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 한편 금리상승과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으로 2개 헤지펀드가 청산위기 가능성까지 있어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환경 금융'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탄소 펀드 등 '환경 금융'이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음**

-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환경을 접목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권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모펀드 설립을 추진하는 등 환경 금융 사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금융에 환경 리스크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의 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임**

- 도이체방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투자은행들은 탄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임
- 영국의 코퍼레이티브뱅크,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뱅크처럼 환경·사회문제에 특화한 금융기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음
- 오는 2009년 도입 예정인 '바젤Ⅱ'*에서는 담보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함

■ **한편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도 환경 금융과 관련된 상품을 속속 출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국민은행의 경우, 최근 산업자원부와 함께 3,300억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사모펀드를 설립한 후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 신한은행의 경우, 2006년 4월부터 사회책임경영 대출을 시작하면서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 중이며,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업무 협약을 맺음

■ **국내 금융사들도 환경경영 체제 도입 및 인재 육성, 환경 금융을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 환경 리스크에 대비한 역량 구축이 시급함**

-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환경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가 기대되는 사업 분야임

---

* 2004년 6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은행의 자기자본에 관한 협약으로, 은행의 내부 규정, 임직원의 업무 행위, IT 시스템의 운영 리스크 등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기대 손실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도록 한 점이 특징임

□ 최고의 여가활동은 TV 시청

■ **TV시청은 성별과 세대를 떠나 여전히 최고의 여가활동임**

-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여가활동은 TV시청·라디오 청취, 목욕·사우나, 낮잠, 외식, 신문·잡지보기 등의 순이며, 특히 1위인 TV시청·라디오 청취는 특히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가장 낮음
- 국민의 여가활동이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등으로 '가족 중심'이 된 경향이 있으나, 남성은 음주, 여성은 사우나가 여가생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보편적인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음

■ **소득과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10대의 여가활동은 온라인 중심이며, 20대는 실외 활동, 30대는 체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며, 40대는 사교 활동이 많고, 50대는 소극적인 편이며 60대는 사적 모임 중심으로 변함
- 소득계층별로는 월평균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평균 22.6가지 여가활동을 경험한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11.5가지로 빈부차가 뚜렷

□ 新이모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엄마의 빈 자리까지 메워 주는 '新이모'형 가사 도우미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여전히 가사 도우미에 그치는 사람도 많지만 온 가족이 도우미에게 기대어 생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일과 시간에 쫓기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엄마들을 대신해서 가사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학교나 학습에까지 관여하는 가사 도우미가 가족 안팎에서 '이모'로서 인정받고 있음

■ **'이모(가사 도우미)'에 대한 수요와 구직 여성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당당한 직업인 '프로 이모'들이 등장하고 있음**

- 간호·조리·교사 자격증이나 학력, 전공 등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홍보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가사 도우미 지원자가 늘고 있음
- 여성 구직자 중 예전에는 도우미밖에 할 게 없다는 탄식이 많았지만 사회 트렌드의 변화로 당당한 직업인이라는 태도로 바뀌고 있음

□ 증시 발목 잡는 금리*

■ **(금리 상승세로 인한 글로벌 증시 하락)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상승세가 유럽,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증시 하락 현상이 초래됨**

- 10년 만기 美 국채 수익률은 5.25%까지 상승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과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함
-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이는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가져옴

■ **(금리 상승의 원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산 시장의 거품 제거를 위한 세계 정책 당국의 의지가 금리 상승세의 요인으로 작용**

- **인플레이션 압력** :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왔던 중국, 인도, 동유럽에서의 임금 인상 요구와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 실제로, 중국의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3.4%로 2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하였고, 영국 역시 2.5%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에서 벗어났으며, 미국도 FRB의 목표 범위 안에 들지 못함
- **정책 당국의 의지** : 자산시장의 거품 제거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국은 기준금리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5월에만 6.4% 상승하여 1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이에 따라 중국은 올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연이어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 **(시사점)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는 글로벌 주가 하락을 초래하였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 5%를 비롯한 현재 각국의 금리 수준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주식시장에 있어 단기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섣부른 예단보다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및 금리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 이 글은 『한경Business』(2007.6.25)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인재를 고르는 안목

최우석의 '삼국지 경영학'은 '삼국지'의 영웅들인 조조, 유비, 손권의 경영과 리더십을 이야기 한다. 이들이 치열한 투쟁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고 운영하였는지를 경영학의 눈으로 설명한다.

이들이 나라를 운영하였던 방식의 공통점은 좋은 인재 발탁과 관리에 있다. 셋 모두 인재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녔으며 한번 믿으면 끊임없이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조조는 상당히 후한 평을 받는다. 탁월한 능력과 넘치는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둔전제(屯田制: 변경지대의 병사가 스스로 경작하여 군량 보급)'와 '병호제(兵戶制: 병사들을 일반호적에서 분리하여 신분을 세습)'의 시행으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고 안정을 꾀한 것 등 혁신적인 경영인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조조의 인재관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과거는 묻지 않고 명분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여 실적 위주로 인재를 발탁하고, 역량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려하는 인재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훌륭한 무장, 꾀 많은 모사, 뛰어난 경제 관료, 글 솜씨 좋은 문사, 명령만 내리면 돌진하는 행동파에 이르기까지 나라 경영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인물들이 즐비했다. 조조는 이들의 특성을 잘 알아 필요할 때 골라 썼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잠재력을 간파하여 인물을 만들어 갔다. 경영자에게 있어서 인재 육성이란 가장 큰일이며, 그 인재를 쓰는 CEO도 같이 업그레이드해 가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유능한 CEO는 한마디로 말해 인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인재들이며 그들은 민심의 강물을 볼 줄 안다. 그 강물은 CEO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 눈 맑은 CEO만 인재를 고를 줄 알고 통 큰 마음이어야 그들을 부릴 수 있다. 그것도 한결같이 겸손하고 긴장된 마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라를 융성하게 하는 길은 좁고 망국의 길은 넓은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착상이란 새벽 닭과 같다.
곧 이어서 다른 닭들이 울어댄다.
칼 하인리히 바거를(1897~1973) : 오스트리아의 작가